

코로나 19를 통과하는 세 명의
디자이너

Three Designers Passing
COVID-19

1. 코로나 19에 뒤덮인 일상

코로나 19가 일상을 뒤덮었다. 곳곳에 그 단서들이 있다. 집을 나설 때는 마스크를 꼭 챙기고 일터에 도착하면 손 소독제부터 찾는다. 식당 입구에서는 오늘 날짜와 시간, 연락처, 주거지를 적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마스크 먼저 벗는다. 예정되어 있던 크고 작은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었고 단체로 식사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 전에 없던 규칙이 세워졌고 전부터 있던 규칙이 무너졌다.

“안녕”이라는 작고 친근한 인사말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안녕”은 ‘편안할 안’, ‘편안할 영’을 써 ‘무사히 잘 있는가’를 의미한다. 그 뜻이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친한 사이에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주고받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한 단어만으로는 부족해졌다. “안녕”이라는 말 뒤에 “별일 없지?” 또는 “아프지 말고 잘 지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라는 염려의 말을 덧붙인다. 견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 속에서 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하게 상대방의 안위를 걱정하게 된 것이다.

나는 건강했지만 별일이 없지는 않았다. 나는 지난여름까지 미국 전문 여행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미국 여행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뒤로 일거리는 점점 줄었다. 코로나 19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심각했으므로 내가 수개월의 재택근무를 다 마치기도 전에 회사는 완전히 기울었다. 그 소식을 대표에게서 전해 듣는 순간, 나는 코로나 19가 바로 내 옆에 와 있음을 실감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 그제서야 궁금했다. 출판사, 언론사, 복합문화공간에서 일하는 세 명의 디자이너를 만나 코로나 19를 언제 가장 크게 실감하냐고 물었다. 이어진 대답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뒤에는 질문을 조금씩 바꾸었다. 모두 마스크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2. 정동규 - 잃어버린 것

정동규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디자이너다. 직접 글을 쓰고 편집하고 디자인한다. 정해진 사무실 없이 카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일한다. 출판사 일을 벗어나면 도서관에서 사회학과 미학 관련 책을 찾아 읽거나 강의를 듣는다. 그 밖에 친목 도모, 독서 모임, 전시 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역대 최고로 올랐을 때 그가 자주 이용하던 도서관은 문을 닫았다. 카페 안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마음 놓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잃었고, 필요한 자료를 서점에서 모두 사들이느라 경제적인 부담을 겪었다. 변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학생이나 프리랜서에 비해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다. “동료들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혹은 “눈치가 보여서”라고 했다. 그는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부와는 유대감이 약해졌다.

그가 유일하게 아무런 목적 없이 하던 일은 청계천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물고기와 새와 오리를 관찰하는 일이었다. 그 시간만큼은 높고 삭막한 빌딩들 사이에서도 자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 지금은 그곳에서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되었다.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하면서 자주 매만지지 않으면 커피 한 잔 마시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름 냄새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것이 대화 중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3. 현재호 - 드러난 것

현재호는 언론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다. 뉴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특정 분위기가 나게끔 지면을 꾸미는 일을 한다. 그는 퇴근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닌다. 동네 서점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친구가 일하는 옷 가게에도 자주 들른다. 집에서 모임은 계속된다.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독서 감상을 나누기도 하고 각자 쓴 글을 함께 읽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한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위태로워 보이던 동네 서점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친구가 일하던 옷 가게도 어느 날 가보니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것은 온라인 모임뿐이었으나 그마저도 최근에는 활동이 뜸했다. 그의 주변에 가득했던 활기가 어느새 사그라들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의 얼굴이다. “짜증이 가득해 보였어. 물속에서 숨을 참고 버티다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말도 툭툭 내뱉어 더 예민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 그 상태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어느 틈에 대화하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졌다.

그러나 머지않아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조금씩 새어 나왔다. 집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유행하더니 그의 친구들도 온라인 게임과 운동에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눌만한 이야기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는 한동안 잠잠하던 독서 모임과 글쓰기 모임 채팅창에 메시지를 던졌다. 아니나 다를까 모두 무기력한 상태에서 기다렸다는 듯 그의 메시지를 반겼다. 그는 무기력한 상태에 알맞은 새로운 모임을 꾸려보자고 사람들을 부추겼고 채팅창은 금세 활발해졌다. 옷 가게 일을 그만둔 친구는 미싱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에게 알렸다.

4. 구보명 - 기대하는 것

구보명은 복합문화공간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다. 공간을 꾸미는데 필요한 재료를 주문하고, 홍보에 쓸 이미지를 만들어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같은 곳에서 열리는 전시와 워크숍 진행을 돕는다. 그 밖에 걸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회사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도맡는다.

최근엔 그는 늘 사용하던 재료를 구하는데 애를 먹었다. 거래처 담당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뱃길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슷한 재료를 판매하는 다른 업체들을 알아내 한곳도 빠짐없이 전화를 돌렸다. 다행히 창고 몇 군데에 남은 재고를 발견하고 모두 쓸어온 끝에 필요한 수량을 가까스로 마련할 수 있었다. 어려움은 또 있었다. 그가 동료들과 함께 지난 몇 달간 준비해 문을 연 공간은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코로나 19가 생기기 전까지 온라인이며 오프라인이며 반응이 뜨거웠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가만히 앉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반대로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는 고민했다.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의 특성상 오프라인에 기대는 부분이 컸다.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려면 “회사가 추구하는 바를 글로 잘 풀어내 줄 사람”이 필요했다. 당장이라도 에디터를 고용하면 좋겠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채용 시장도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글 쓰는 능력을 계발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힘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면, 회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원격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와 아르바이트 인력을 제외하고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나이가 지긋했다. 그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다룰 일이 드물기도 했고 필요하다면 그의 도움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사라지자 그들 스스로 컴퓨터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주 작지만 온라인 사업과 연결되는 어떤 가능성을 보았다.

5. 새로운 신호

세 명의 디자이너와 코로나 19를 주제로 나눈 대화에서 한 사람은 상실(잃어버린 것)에 관해, 다른 한 사람은 활기(드러난 것)에 관해, 마지막 한 사람은 희망(기대하는 것)에 관해 말했다.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말하자면 상실은 과거, 활기는 현재, 희망은 미래라고 볼 수도 있었다. 세 사람이 시간을 다리로 서로 이어져 있지만 앞뒤로 조금씩 떨어진 채 정체를 알 수 없는 흐릿한 무언가를 통과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 모습은 마치 안개가 짙게 깔린 도로 위에서 한 방향으로 차를 모는 운전자들 같았다. 그들은 힘차게 달릴 수도, 제자리에 멈춰 설 수도 없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도로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차선이나 중앙선, 가드레일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워 내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진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더 이상 라디오키 음악을 들을 수도, 거리의 풍경을 즐길 수도, 옆 사람과 웃고 떠들 수도 없게 된다. 온갖 종류의 정보가 사라진 안갯속은 의지할 데 없이 고요하고 쓸쓸하다. 거꾸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보가 길 위에 존재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 속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차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안개등을 켜 시야를 넓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모퉁이에서는 경음기를 울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운전자에게 내 위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창문을 열어 주변 도로 상황이나 다른 운전자가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새 신호는 기존 신호와 마찬가지로 혹시 모를 충돌을 막으면서 모두의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신호가 “어디로 가시오” 혹은 “무엇을 조심하시오”하며 운전자의 앞날을 예측하고 조언했다면, 새 신호는 그저 “내가 여기에 있다”하며 가까이에 사람이 있음을 알린다는 것이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신호는 그런 성격의 것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맞닥뜨린 안개에 주행이 어려워진 운전자는 나쁜만이 아니라는 사실, 가까이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이 운전자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개 낀 도로 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안개 자체보다 안개등을 켜지 않은 차일 수도 있다. 안개등을 켜지 않고 경음기도 울리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신호도 만들어내지 않는 운전자는 하얀 어둠을 말 그대로의 어둠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하얀 어둠 속에서도 빛은 희망을 의미한다. 모두가 아무 탈 없이 안개를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신호를 만들어내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 19가 안개라면, 세 명의 디자이너가 세 명의 운전자라면, 대화를 통해 그들이 나에게 보낸 신호는 이렇다.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유대감을 상실했으며 주위에 가득했던 활기를 잠시 잃었으나 되찾는 중이고 새로 시작하는 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나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쓴다. “나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지금껏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작업실과 인쇄소와 방산시장을 오가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 책방에 입고하고 있다. 더불어 고정 수입이 없어 늘 초조하며 뚜렷한 직업과 직장 없이 나를 소개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당장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 이 글을 읽는 이의 “안녕”을 바라며 우리처럼 당신도 그것에 맞서 무사히 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새로운 신호를 보낸다. 📡